



간추린 청렴 소식

[1] 대검, 전국 청 '청렴 업무 담당자 교육' 실시



대검찰청 검찰부에서는 '21. 5. 17. ~ 18. 일선 청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검찰 청렴정책, 자체청렴도, 주요 검찰사례, 청탁금지법 등 알찬 강의로 이론을 익히고, 분임별 토의 시간을 통해 청렴에 한걸음 더 다가선 시간이었습니다.

[2] 서울북부지검, '청렴 토크 콘서트' 실시

서울북부지검(검사장 김후곤)에서는 '21. 4. 팍페라테너 임형주와 함께하는 언택트 청렴 토크 콘서트를 실시하였습니다.



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묵묵히 자기만의 구간을 연주하듯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전 국민이 그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. 검찰 구성원들의 하모니가 국민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!

[3] 창원지검, '청렴 독서 릴레이'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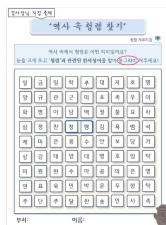


창원지검(검사장 최경규)에서는 '21. 4. 청렴 독서 릴레이를 개최하여 독후감 우수작을 선정하고 전파하였습니다.

'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'(국민권익위원회 저)를 읽고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😊

[4] 제주지검, '역사 속 청렴 찾기' 개최

제주지검(검사장 박찬호)에서는 '21. 4. 청렴과 관련된 한자성어로 숨은 낱말 찾기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.



'청풍양수'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.
'백절불요' 백 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.



알아두세요

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까요?

[청탁금지법 제10조,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]

신고대상

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

단,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불요

*외부강의등 :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이고 등

신고방법

- ✓ 소속 기관의 장에게
- ✓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
- ✓ '외부강의등 신고서'에 따라 서면 신고

사례금

상한액 40만 원 (강의등 1시간당, 기고 1건당)

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60만 원 (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)

※ 초과사례금은 서면 신고 및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

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!

감성충전, 청렴 명대사



순간의 선택이 모여
삶과 인생이 된다

드라마 '미생' 中

삶이 뭐라고 생각해요? 거창한 질문 같아요? 간단해요
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
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
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,
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?

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미생에서, 신입사원 한석울(변요한)이 장그래(임시완)에게 했던 말입니다.

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합니다.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그 선택의 순간, '나는 청렴한 사람이다'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면, 우리는 훌륭한 공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?

청렴 상식이 쑥쑥!

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

당나라 시대에 시인 유우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. 그는 옳지 않은 일, 부조리한 일을 보고는 참지 못했다. 설령 그 대상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불의에 대한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.

유우석은 당시 권세가들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몇 차례나 귀양을 갔다 와도 그의 깨끗한 기상은 꺾일 줄 몰라 강직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로 부각되었다.

유우석이 쑤저우 지역의 감찰관인 자사(刺史)로 근무할 때, 토목 공정을 맡고 있던 사공(司空) 이신이 그를 연회에 초대하였다.

그 자리에 예쁜 기녀가 나와 '두위랑'이라는 노래를 불렀다. 그것을 보는 이신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품이었지만, 유우석은 그 모습에 매료되어 넋이 나갈 정도였다. 그 자리에서 유우석은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했다.



높은 상투 머리 쪽지고 궁녀같이 곱게 꾸며
봄바람에 흥겨워 두위랑을 부르는데
사공은 자주 보아 범상한 일이지만
쑤저우 자사의 마음은 다 끊어질 듯하다

사공견관(司空見慣)

'사공은 버릇처럼 익숙하게 보았다'
흔히 보던 일이라 습관이 되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

사소한 부정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이신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.

너무나 익숙해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정부패가 없는지, 경각심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

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

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미국 아마고사 사막에 있는 펌프 밑 물병의 물은 이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채워둔다고 합니다. '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'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?

- ① 우물물 ② 마중물 ③ 개숫물

※ 힌트 : Monthly청렴 2021년 5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 **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**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
- ★ 응모기간 : 2021. 6. 18.까지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5월 정답은 ① O (행동강령 위반 아님) 입니다.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^^



축!
당첨

엄OO(여주), 심OO(수원), 이OO(중앙), 이OO(목포), 박OO(대구서부), 김OO(서울동부), 이OO(청주), 지OO(김천), 김OO(대검), 송OO(외부)



민원인의 목소리

민원인이 오면 적극적으로 자기일처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, 민원인이 잘 몰라서 헤매일때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오면 마지못해 일을 처리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

▶ 낯선 환경에 들어선 민원인을 위해 우리가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보는 건 어떨까요?

▶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치료비, 생계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깊고 굉장히 친절하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.

▶ 논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 담당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♪

